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24
----------	-----

2019. 6. 20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안) 의견청취

2. 심사경과

의안 번호	제출일자	회부일자	상 정 내 역 (상정일자)	심사결과
724	2019.5.24	2019.5.30	제287회 정례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9.6.20)	원안동의

3. 제안설명의 요지 (강맹훈 도시재생실장)

제안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나. 「용산전자상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사업개요

[추진방향]

- 사람들이 용산을 다시 찾게 함으로써 도시활력을 회복하는 것을 용산 전자상가 도시재생의 기본으로 하여, 용산의 특성을 강화한 '체험 가능한 시장 조성' 및 '기존산업 고도화와 미래를 대비한 신산업 융합', '시장과 제조의 연계', '방문객들이 쉽게 올 수 있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시 문화와 공공장소 활동 제공'을 계획 과제이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함.

[주요사업]

- 마중물 사업 (19개 사업, 200억원, '18~'22)
  - 보행환경개선사업, 체험전시공간(용산ICON)조성, Y밸리 광장 조성,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 및 활성화, 창업문화복합허브(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추진중, 공기업(LH) 참여 예정), 신산업 거점조성 및 창업지원, 상생협약, 통합거버넌스 구축 등
- 부처연계사업 (6개 사업, 51.8억원)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운영 사업, 공중선 정비 등
- 지자체 사업 (9개 사업, 188.7억원, '18~'22)
  - 서울글로벌 창업센터 운영, 디지털 대장간 운영, 드론 비즈니스 콤플렉스 구축·운영, 장기안심상가 공급 등
- 민간 사업 (2개 사업 485.5억원, '18~'19)
  - 용산전자 상상가 공간 (기부채납), 스마트보행교 조성 (기부채납)

[실행수단]

- 공공부문 전담조직(서울시, 용산구 등),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통합주민 협의체(구성 중), 전문가 및 시민단체, 중앙부처 등 관련 주체의 협력적 추진 도모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심시가지형)으로 지정, 2022년까지 마중물 사업 200억원(시비), 부처연계사업 51.8억원, 지자체 사업 188.7억원, 민간사업 485.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

○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을 통한 국비 추가확보 및 공기업 참여 추진 중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예산 확보 필요

- 마중물사업 : 200억원
- 부처연계사업 : 51.8억원
- 지자체 사업 : 188.7억원
- 민간 사업 : 485.5억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추진경위]

- '17.02.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2단계)
- '17.06.0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착수
- '17.12.29.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전문가 자문단, 시민거버넌스, 도시재생지원센터 체계 마련
- '18.01.02. 현장지원센터 구축(찾아가는 현장코디네이터 운영)
- '18.04.03. 용산Y밸리 혁신플랫폼 선포(16개 전략기관 MOU)
  - 도시재생 미래비전 대외발표(시장님), 앵커시설(용산전자 상상가) 오픈
- '18.07.~현재. 도시재생대학(Y캠퍼스) 운영, 주민공모사업 추진
- '18.07.07/10.05~06 오프라인 활성화 위한 전자마켓 개최(2회)
- '18.08.17 로봇페스티벌개최 및 로봇신유통플랫폼 MOU체결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약 체결(전자랜드)
- '18.10.06/11.30 테크플러스용산 개최(2회)
- '18.11.16~17 한마음 도시재생 상인워크숍 개최
  - 매주 화요일 상인연합회 런치토크 / 1,3주 수요일 상인연합회 런치토크 진행 중
- '19.02.28 글로벌 CSR 포럼 개최, 서울시-UN HABITAT LOI체결

- 용산전자상상가 내 YOUTHNOW(한국 실행 단체) 청년과 도시정책위원회 입주
- '19.04.24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현장시찰
- '19.05.10 글로벌해카톤 2019 정선X 서울 개최
  - 20개국 200여명의 대학생 참여
- '19.06.03 주민공청회 및 주민협의체 창립총회 개최

#### 4. 검토보고의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 제출 경위

- 용산전자상가 일대(용산구 한강로3가 40-969 일대, 212,123㎡)는 2017년 2월 도시재생 유형 중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이후 2018년 7월 변경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sup>1)</sup>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반영된 지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19.6.3) 등 관련 절차를 이행 한 후,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5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 대상지 현황

- 대상지는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 광역중심(2030서울플랜)에 위치해 있으며, 일반상업지역이자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전자제품 관련 전문 상가지역임. 4개의 상가<sup>2)</sup>(나진, 선인, 원효, 전자랜드)에 약 4,000여개의 점포가 입지해 있으며, 대부분 '컴퓨터 및 주변기

1) 서울시공고 제2018-1570호(2018.7.5.)

2) 선인상가의 경우 컴퓨터/주변기기, 원효상가는 컴퓨터, 전자랜드는 컴퓨터/음향/전자제품이 주 업종임. 나진상가는 동별로 컴퓨터에서 가전, 게임, 휴대폰, 조명 등 다양한 분야의 특화 업종이 운영되고 있음.

기' 관련 매장(약 43%)으로 이루어져 있음.

- 30~5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약 83%<sup>3)</sup>) 경부선 철도에 의한 동서공간구조 단절과 접근성 저하는 대상지의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음. 또한 주력 시장(PC) 축소와 온라인 시장 대응 부족으로 1990년대 대비 매출액이 약 50%가 감소하였으며, 기존 산업영역의 축소와 건물주-상인간 갈등은 용산전자상가의 쇠퇴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그러나, KTX, 경의·중앙선, GTX-B, 지하철 2개 노선 등 전국과 서울 수도권이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 단절된 용산역-한강대로 연결시 한강대로 일대 활력과 유동인구의 유입이 매우 용이하하다는 점, 기 구축된 창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기능 강화 및 신산업을 접목할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조적 산업 생태계 구축 잠재력이 매우 높고, 국가 육성 미래산업과 용산전자상가 특화 업종이 상호 높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 잠재력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뿐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의 도심 신산업 중심지로서의 역할 극대화도 가능한 곳으로 판단됨.



3)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



## □ 세부계획 내용 검토

### 첫째, 추진방향 관련

- 2000년대 초반까지 제조·생산 활동부터 수리와 AS까지 전 영역을 갖춘 전자산업의 메카였으나, 조립PC 시장규모의 축소와 온라인 판매, 대형 유통플랫폼의 발달로 현재 제조·생산 기능이 쇠퇴하고, 주로 판매·유통과 AS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는 용산전자상가의 현재의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 상가 및 산업 활성화, 신산업과의 접목 및 창업지원 등을 통해 용산전자상가를 IT와 전자산업의 메카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여 '22년까지 19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목 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기간	예산(억원)	사업주체
기존 상가 및 산업 활성화	보행 접근성 개선	용산전자상가 인지도 강화사업	'18~'22	22.9	시 재생정책과 용산구 도로과 민간(주민협의체)
		용산전자상가일대 보행환경 개선			
	스마트 환경 구축	스마트 보행교 조성사업	'19~'22	32.2	시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추진단) 민간(주민협의체)
		스마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스마트 가로등)			
		체험·전시 공간 (용산CON)조성			
	활력거점 조성	Y밸리 광장 조성	'19~'22	27.3	시 재생정책과 구 시설관리공단 민간(선인상가)
컴퓨터 스토리 카페(Computer Museum) 조성					
판매활동 활성화	On Air 제품 스튜디오	'19~'22	0.8	시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상상가운영) 민간(시설주)	
	통합물류 처리공간 계획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창업플랫폼 조성	용산전자상가 운영 및 활성화(인큐베이팅)	'18~'22	31.4	시 투자창업과 구 도시계획과 시 재생정책과,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 (액셀러레이팅)			
	산업 기반 마련 및 육성	신산업 육성 지원	'19~'22	35.1	구 도시계획과 민간(나진 원효 등)

목 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기간	예산(억원)	사업주체
지원		신산업거점조성 및 창업지원			공공기관
상생거버넌스 구축 운영	상공인 지원책 마련	상생협약	'18~'22	16.8	시 재생정책과 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협동조합) 시 재생정책과 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시 재생정책과 구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주민협의체)
		상인역량강화 및 자립모델 구축			
		주민 공모사업			
	거버넌스 운영	통합거버넌스 구축	'18~'22	13.2	
Y밸리 첨단 브랜드 구축	시민공감 프로젝트	'18~'22	14.5		
특화 축제 및 창업 공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5.8억원) 제외

- 다만, 용산전자상가는 우리나라 IT와 전자산업의 집적지로서 서울의 도심산업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세운상가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산업, 제품생산과 유통, 소비형태 측면에서 엄연한 차이점이 존재하므로, 세운상가와 차별성과 용산전자상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키고 이에 따른 목표와 전략상의 차이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둘째,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관련

-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접근성 향상, 활력거점 조성, 전자상가만의 매력 찾기, 판매활동 활성화, Y밸리광장 조성 등 9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사업비 83.2억원을 책정함.

#### <기존 상가 및 산업 활성화>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억원)	사업주체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억원)	사업주체	총 예산(사업수)
용산전자상가 인지도 강화사업	'18~'22	8.8	시재생정책과 등	Y밸리 광장 조성	'20~'22	25.0	시재생정책과 등	83.2 (9개 사업)
용산전자상가일대 보행환경 개선	'20~'21	14.0	구도로과 등	컴퓨터 스토리 카페 (Computer Museum) 조성	'19~'22	2.3	민간(선인) 등	
스마트 보행교 조성사업	'19~'22	3.6	시재생정책과 등	On Air 제품 스튜디오	'20~'22	0.8	시재생정책과 등	
스마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19~'20	1.0	민간(추진단) 등	통합물류 처리공간 계획	'20~'22	비예산	민간(시설주) 등	
체험전시 공간 (용산ICN) 조성	'21~'22	27.7	시재생정책과 등	-	-	-	-	

-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목적이 없으면 접근하기 어려운 ‘도시 속 섬’으로 전략한 용산전자상가의 보행접근성 개선과 스마트 보행교 조성(용산역~서울드래곤시티 호텔), 거리환경개선 사업, 스마트 시제품 제작 지원, 체험·전시공간 마련, Y밸리 광장조성 등의 사업은 용산전자상가의 상징성과 이미지 개선, 인지도 향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겠음.
- 다만, 전자상가의 기술력과 집단지성을 결집하여 ‘스마트 가로등’을 개발하여 제품화하려는 ‘스마트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체험·전시공간 조성’시 용산전자상가에 다양한 놀거리와 볼거리를 혼합하여, 애니메이션과 게임관련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 문화 콘텐츠와 드론, VR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능을 배치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를 테스트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으로 유동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상가별, 점포별로 처리되고 있는 기존의 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시설주, 방문객들 모두 공감하고 있는 문제로서, 그 효율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십 년 동안 유지해 온 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적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전자상가 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신제품 체



험 매장으로의 전환과 문화공간 유치 등의 개별적인 노력들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위해 단계별 육성 프로세스를 적용·계획하였음. 기존산업을 신산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창업공간 지원시스템 도입, 상가별 특화산업 설정 및 자생적 산업생태계 구축, 창업문화복합허브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창업지원을 추진함. 이를 위해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 및 활성화사업을 포함한 4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여 사업비 66.5억원을 책정함.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총 예산 (사업수)
용산전자 상상가 운영 및 활성화 (인큐베이팅)	‘18~’22	28.6	시재생정책과 등	신산업 육성 지원	‘19~’22	비예산	시재생정책과 등	665 (4개 사업)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 (액셀러레이팅)	‘18~’22	2.80	시재생정책과 등	신산업거점조성 및 창업지원	‘19~’22	35.1	시재생정책과 등	

- 용산은 디지털 인프라, 예비창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무자본 창업자부터 소유자까지, 생산에서 판매,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역량을 가진 곳으로서, 실제로 현재에도 고려대·연세대·성균관대·서울시립대·숙명여대 등은 용산전자상가에 ‘현장캠퍼스’를 만들어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의 기술력과 조달력, 제작력을 겸비한 기존의 산업주체와 결합한다면,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상품개발 및 제작 유통 등이 원스톱으로 제공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용산전자상가 산업의 세대 승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상인이나 상가, 새로운 산업주체들이 서로 배척하거나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공감과 소통을 통한 협업체계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등 소

통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용산전자상가 내 상가별 공실매입 및 임대 시 시설주와 상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영세한 신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에 창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공간은 투자·세무·회계·마케팅·특허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 시스템을 연계하는 거점공간 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상가의 활성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상인들이 변화하는 트렌드를 받아들이고 다른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열린 태도가 있어야 가능할 것임. 따라서, 맞춤형 교육과 상인역량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창업인 및 현장캠퍼스와의 연대 및 지속적 교류가 가능토록 관련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및 콘텐츠를 발굴, 모니터링하여 사업 추진 동력을 형성해야 할 것임.
- 신산업 유치 및 창업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창업 문화복합허브 조성계획**은 주거기능과 문화시설을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용산 우수지 재정비 방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18~'19)을 시행 중에 있음. 용산전자상가는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sup>4)</sup> 지정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시 허브 조성에 국비 추가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공청회 결과 주거입지 및 고층개발을 반대하는 한편 공원 등 열린공

---

4)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의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조기에 조성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이 필요한 지역을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원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을 방문(2019.3.29.)하여 혁신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을 위한 조속한 사업추진 일정을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파악됨.

간과 근린생활시설 및 문화시설 도입을 희망하는 상인들의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창업문화복합허브 조성 추진협의회(상인, 시설주, 전문가 그룹 등)와 조성위치, 도입시설과 규모 등에 대한 논의과정을 통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젠트리피케이션 사전 예방을 위한 시설주와 상인간 상생협약 체결 지원, 임대차 관련 상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18.1)을 시작하였으며, 상상가내 현장센터 개소 후(‘18.4.3) 현재 산업, 거버넌스, 문화/홍보 분야별로 현장코디네이터들이 상인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마중물사업	기간	예산 (억원)	사업 주체	총 예산 (사업수)
상생협약	‘17~’22	비 예산	소유자-임차인	통합거버넌스 구축	‘18~’22	13.2	시재생정책과 등	445 (6개 사업)
상인역량강화 및 지립모델 구축	‘18~’22	1.8	시재생정책과 등	시민공감 프로젝트	‘18~’22	9.2	시재생정책과 등	
주민 공모사업	‘18~’22	15.0	구도시계획과	특화 축제 및 창업 공모	‘18~’22	5.3	시재생정책과 등	

-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시설주-임차인간 갈등 해소를 위해 향후 시설주와 상인간 대화창구 및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우선 가능한 상가부터 상생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용산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종합

-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 용산전자상가의 가장 큰 강점은 대한민국 전자제조유통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뛰어난 광역 접근성이라 할 수 있음. 과거에 비해 쇠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컴퓨터, 디스플레이기기, 음향기기 등이 밀집한 전국 최대 전자상가이자, ‘용산

PC'라는 조립용 PC 유통의 중심지이며,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부품과 제품을 수입하고 국내 오픈마켓에 유통시키는 곳이기도 함.

- 도심부에 위치한 전통산업은 축적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쇄신노력을 통해 첨단화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은 쇠퇴하고 결국에는 임대료 상승에 밀려 도심 밖으로 퇴출되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산업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도시재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산업, 공간환경,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용산전자상가의 제2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계획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특히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지원과 현장맞춤형 교육 등 상인역량 강화,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 종합안내 및 신산업 체험공간인 용산 아이콘, 용산전자상가 컴퓨터 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컴퓨터 스토리카페 조성, 용산전자상가만의 특화축제(용산위크, 전자마켓, 테크플러스 용산 등) 및 온라인·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홍보사업 등은 상인들이 실질적인 재생사업의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매출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선입견이 해소되어야 할 것인 바, 안정적 영업 및 참여를 위한 소통체계 구축이 병행되는 가운데 충분한 참여기회와 인식개선에 대한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상인들의 자력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실행구조 및 사업화방안에 대해 시와 자치구 관련부서, 현장지원센터, 상인관련 주체 간 지속적인 논의구조를 바탕으로 세로운 사업아이템 발굴을 이어가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동의 (참석위원 전원 찬성)

의견

첫째, 적극적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잠재력을 활용하여 재생사업을 내실화할 것

둘째, 용산 Y밸리로의 버스노선 조정 등 시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셋째, 폴리텍 대학 자원을 활용한 재생연계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서울특별시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724
----------	-----

제출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 1. 제안이유

-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마련하였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 나.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용산전자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 오프라인 상권 강화 및 공간환경 개선으로 많은 사람이 다시 찾아와 활력을 회복하는 ‘기존상가 및 산업 활성화’
  - 용산전자상가 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 및 창업지원’
  - 소통과 교류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재생활성화 기반확보를 위한 ‘상생 거버넌스 구축·운영’

### 3. 추진경위

- '17.02.1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7.06.07.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착수
  - 산업포럼, 공청회, 전문가 자문 등 약 40여회 진행
- '17. 06.~현재. 런치토크 및 상인워크숍 진행 등 주민의견 수렴
  - 상인, 시설주 연합회 매주(화, 수) 런치토크 진행
- '17.10.23./02.19 행정2부시장 보고
- '17.10/'18.10 제1,2회 용산 WEEK 개최
- '18.01.02.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 '18.02.16.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18.04.03. 용산 Y-Valley 혁신플랫폼 선포식 개최(대외발표)
  - 16개 전략기관 MOU(민·관·학 협력적 통합 거버넌스 구축)
  - 청년창업플랫폼 '용산전자 상상가' 개소
- '18.07~10./'19.04~12 '18/'19 도시재생대학 운영
- '18.06~10./'19.04~12 '18/'19 주민공모사업 추진
- '18.07.07/10.05~06 오프라인 활성화 위한 전자마켓 개최(2회)
- '18.08.17 로봇페스티벌 및 로봇新유통플랫폼 MOU체결
- '17.12/18.08. 상생협약 체결(선인/전자랜드)
- '18.10.06/11.30 테크플러스용산 개최(2회)
- '18.11.16~17 한마음 도시재생 상인워크숍 개최
- '19.02.28 글로벌 CSR 포럼 및 서울사UN HABITAT LOI체결
  - 용산전자 상상가 내 YOUTHNOW(한국 실행 단체) 입주  
(청년참여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협력)
- '19.04.24 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상가 현장사찰
- '19.05.10 글로벌해카톤 2019 정선X 서울 개최
  - 20개국 200여명의 대학생 참여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의견청취사항

※ 작성자 : 재생정책과 재생사업팀 홍명순 (☎ 2133-8636)